

A-2. 임플란트 수술시 부착치은을 보존, 회복시키기 위한 술식의 활용

피성희*, 김탁,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임플란트의 성공에 있어 주된 관심사는 골과 임플란트간의 osteointegration에 있지만, 최근 임플란트에서도 자연치의 부착치은과 같은 각화조직이 임플란트의 장기적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각화치은이 없더라도 임플란트의 예후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치는 충분한 각화치은이 부족하게 되면 구강위생이 어려워지고 저작과 칫솔질 동안의 치은손상과 세균성 치태에 대한 방어 등이 불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착치은이 부족한 임플란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자연치와 유사하게 부착치은을 보존 유지시킴으로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임플란트 식립이 요구되어지는 무치악부위에는 치아존재시 유지되었던 부착치은이 발치후에도 위치하게 되지만, 치조골이 흡수함에 따라 그 양과 위치가 변하게 된다. 임플란트 수술시에 변화된 부착치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부착치은의 상실에 따른 부가적이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임플란트 수술시 부착치은을 보존하게 위한 절개하거나, 임플란트 매식 후 유리 치은 이식술을 시행함으로써 양호한 임플란트의 치주상태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 임상례를 보고하는 바이다.